

광주·전남 곳곳 '사유지 도로 폐쇄' 갈등

동구 계림·산수동 100여명
가두행진 동구청 항의방문
남구서도 울타리 쳐 통행 막아
나주선 통행 다туда 살인까지

광주·전남 곳곳에서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유지를 이유로 수십 년 이상 사용해 온 도로를 폐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도로로 이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히자 집회를 열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도로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나서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광주 동구 계림동·동명동·산수동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계림교회 앞 폐쇄된 도로를

즉각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 동구 계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이상 시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라면서 "동구는 비상식적인 행정에 의해 이 도로를 계림교회 사유지로 만들어 버렸고, 교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9시30분께 계림교회 앞으로 집결한 뒤, 동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입택 동구청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계림교회는 지난 1일 교회 앞 2차선 도로(길이 100m·폭 8m) 양쪽에 블라드(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 도로는 계림 5거리에서 계림두산위브로 통하는 계림로 중 일부 구간이다. 동구는 계림 5-2구역의 재개발사업부지에 계림교회 일부 부지를 편입하고 이 구간의 소유권을 넘겼다. 대신 교회 건물을 우회하는 도로를 새로 만들었지만, 폭 8m

의 이 도로는 S자 굴곡에 경사마저 심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림교회는 주차 부지 확보를 이유로 도로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계림동 나무전 사거리부터 광주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 17m 도로가 2020년 완공되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은 도로의 역사성을 내세우며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동구는 계림교회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다"며 "도로가 원상회복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50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봉선동의 한 도로에 대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타이어 수백 개를 쌓아놓고 울타리를 쳐 통행을 막고 있다. 이 도로는 인근 사우나건물 주차장과 이어져 있었는데, 사람이나 차량통행은 물론 화재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토지소유자들은 남구와 인근 상가 소유주들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땅값이 너무 높으며 거절당하자, 항의의 뜻으로 도로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나주시의 한 마을에서는 사유지 통행 문제를 놓고 수년간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다 살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마을 주민 A(73)씨는 자신의 발을 가려면 B(71)씨의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B씨가 농로 입구에 캠핑카를 세워농자화를 못 이겨 흥기로 B씨를 숨지게 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인구수 변화, 건물부지,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다소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이 많다"며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유지에 있는 도로를 직접 매입하는 등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북구청 직원들의 드론 교육 광주시 북구 대촌동 드론비행연습장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북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을 공공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교육을 진행했다. /최현배 기자 choi@

“경제 회복 철회하라”... 日제품 불매운동 학생들도 나섰다

광주 광덕고 불매운동 선언식
목포마리아회고 항의 현수막

일본의 경제보복에 광주·전남지역 학교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회는 17일 오후 교내 태극기 상설 전시관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언식을 열고, "역사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여한 150여

명의 학생들은 '일제(日製)의 사용은 일제(日帝)로의 회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사용했던 일본 제품을 버린 뒤 국산 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부모에게 불매운동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앞서 목포마리아회고는 지난 8일부터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정문에 걸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마리아회고는 2017년 학생 벼룩시장과 체육대회 물품 판매로 기금을 마련해 교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지난해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조각상을 세우는 등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덕고의 경우 단체 신채호 선생 후손이 설립했으며, 지난해 광복회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100여 점을 중심으로 학교 본관 1층에 태극기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피서철 해수욕장 성범죄
여가부·경찰청 합동단속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라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지에서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1만7575건으로 이 중 전체 31%에 달하는 5530건이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달뜨기 20:51
해질 19:46 달집 06:25

우산 챙기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비 내리겠다.

광주	비	22/26	보성	비	22/25
목포	비	23/26	순천	비	22/26
여수	비	22/24	영광	비	22/26
나주	비	22/26	진도	비	22/25
완도	비	22/25	전주	비	22/27
구례	비	22/26	군산	비	22/27
강진	비	23/26	남원	비	21/25
해남	비	22/26	흑산도	비	21/25
장성	비	22/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 생활지수

경고	☔
보통	☀
좋음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35	03:22
여수	20:28	15:08
	04:00	09:50
	15:49	22:30

◇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	☔	☔	☔	☔	☔	☔
23/29	24/29	23/29	23/30	23/31	23/30	24/32

광주 여성장애인단체, 건물 신축 약속 이행 촉구

광주 여성장애인단체가 이용섭 광주 시장에게 건물 신축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용섭 시장은 건물 신축 약속 번복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약속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지난 4일 '제8회 현장경청의 날'을 맞아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건물 신축을 약속했다. 지난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비가 새고 담배막이 무너져 꾸준히 시설 보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시 공무원들은 이용섭 시장의 약속과 달리 엘리베이터 교체·담배막 보수 등 기능보강만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이용섭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여성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월부터 출동 급증... "벌집 건드리지 말고 신고하세요"

소방청은 17일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7월부터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이 급증한다"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해 월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를 보면 5월 3585건, 6월 8204건으로 점차 늘다가 7월에 3만 8730건으로 급증했다. 8월이 5만3978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고 9월도 3만152건에 달했다. 7~9월 3

개월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를 합치면 모두 12만2860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7003건)의 83.6%를 차지했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집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상처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인 곳은 얼음주머니 등으로 냉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